우암학원 창학67주년 | 취업맞춤형 특성화 선도대학
Good Smile NAMBU
남부대학교

光州日報

NK뷰키트, 숫자로 확인하는 NK세포활성도-
ATGen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526호 1판 (음력 5월 29일) 2017년 6월 23일 금요일

취업절벽에 일자리 창출 올인

광주·전남 민선6기 3년 결산

광주시, 광주형 일자리·미래 먹거리 산업 기틀 마련

전남도, 청년 돌아오는 전남·고령화 대비 역량 집중

민선6기 3년동안 광주시와 전남도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한 정책은 청년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이었다.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를 통해, 전남도는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을 모토로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2일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6기 3년에 대한 성과와 남은 1년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는 미래먹거리 산업 기반을 다지고, 5·18 광주정신을 바로 세우는 한편 일자리 창출의 새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자동차, 에너지, 문화 등 3대 미래 먹거리 기반을 다지면서 광주의 산업지형을 신산업으로 바꾸었다는 평가다. 특히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도 민선 6기 최대 성과로 꼽힌다.

또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왜곡 축소되어 온 5·18과 광주정신을 바로 세우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광주형 시민참여 민주주의'도 단연 돋보이는 성과다.

시민시장으로 불리는 윤장현 광주시장은 22일 임기 3년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정직하고 폭넓은 소통, 권위주의 탈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 시민이 참여하는 협치와 협업시스템 도입 등을 성과로 꼽기도 했다.

다만 논란과 갈등이 적지 않았던 주요 정책의 의사결정과정 등은 행정 초보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취임 초기의 산하기관장 인선 등의 인사잡음과 부실한 정무라인, 정책자문관의 비리, 공공기관장의 일괄 교체 과정에서의 잡음, 전공노 가입과 관련한 노조와의 갈등 등은 지난 3년 윤 시장의 발목을 잡고 시정 동력을 떨어뜨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섬, 숲, 남도 문예, 에너지밸리 등 전남이 가진 자산과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6차 산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실현, 여수 경도와 미래에셋의 1조원대 투자 협약 등 농어업, 관광 등의 분야에서도 성과를 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들이 전남의 최대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질 높은 일자리 부족, 철강·조선·석유화학 등 기반산업의 침체 및 대안 부재, 빈약한 첨단과학기술 기반 등의 명실상부한 해결책이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뒷받침이 돼야 하겠지만, 전남도가 현안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계획 및 대책을 수립하고 도민은 물론 정부부처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자체 동력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민선 6기 3년동안 가장 아쉬운 점으로 2015년 일시 증가했던 인구(2014년 대비 3216명 증가)가 다시 급감하면서 지난 3월 190만명선이 붕괴된 것을 꼽았다.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내걸고 출산율 높이기, 귀농·귀촌인 유치, 청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제공 등의 시책을 시행했지만 인구는 오히려 줄었다.

지난 2014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의 5분의 1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에 진입한 뒤 고령화는 점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가 인구 증가, 초고령화사회 대비 등에 예산·조직·정책 등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일자리 만들기'의 경우 대상을 일부 계층에 한정짓기 보다는 청년·여성·노인·중장년 등 전계층을 아우르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바닥 드러낸지 오래…모래밭 된 대촌천 22일 광주시 남구 대촌동 대촌천을 찾은 농민들이 바짝 마른 하천 바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농업용수를 공급해야 할 대촌천은 물길이 말라 모래밭으로 변했다. 이른 불볕더위에 가뭄까지 이어지면서 농민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443억 vs 23억…누구 손 들어줄까

광주U대회 선수촌 사용료 소송 29일 1심 선고

1년여 넘게 진행되어 온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광주U대회) 선수촌 사용료 지급 소송 1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판부의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2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서구 화정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U대회 선수촌 임대료 지급 소송 선고공판이 오는 2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은 사용기간에 대한 입장 차이다. 사용기간에 따라 양측이 주장하는 금액은 조합 측 443억원, 광주시 23억원으로, 20배 가량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2015년 광주하계U대회 선수촌 건립 협약서'를 근거로 임시사용이 이뤄지는 2015년 4월부터 대회 폐막 뒤 선수촌을 넘기는 9월까지 126일에 대한 임대료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조합 측은 선수촌 아파트를 광주시에 인계한 2015년 4월20일부터 입주가 지연된 이듬해 3월말까지 최소 11개월치 사용료 등을 광주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모든 세대 입주가 늦어진 만큼 3726세대 전체가 지급 대상이라는 조합 측 주장과 실제 선수촌으로 빌려 쓴 2445세대 몫만 주겠다는 광주시 입장도 충돌하고 있다.

이자비용은 중도금(70%)과 잔금(30%)을 포함한 분양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조합과 미납 잔금에 대한 금융 이자만 줄 수 있다는 광주시 간 셈법이 각각 다르다.

이를 모두 종합해서 재판부 지정 전문감정인이 평가한 선수촌 사용료는 조합 기준 443억원, 광주시 기준 23억원이 각각 산출됐다.

재판부가 어느 쪽 손을 들어주든 양측 모두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최종 결론까지는 앞으로도 수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文대통령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채용"

수석·보좌관회의 '할당제' 지시

"학력·출신지 기재 없애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혁신도시 사업으로 지역으로 이전된 공공기관이 신규채용을 할 때 적어도 30% 이상은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를 운영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7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당부한 뒤 "그래야 혁신도시 사업이 지역인재까지 발탁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혁신도시,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원래 혁신도시 사업을 할 때 (채용 할당제가) 하나의 방침이었는데, 들쭉날쭉 한다"며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공공기관은 20%를 넘어선 곳도 있고, 관심이 덜한 공공기관은 10%도 안 될 정도로 지역마다 편차가 심한데 적어도 30%선 정도는 채용하도록 확실한 기준을 세우든지 독려하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과 공공부문 채용할 때 블라인드 채용제를 실시했으면 한다"며 "공무원과 공공부문은 정부 결정만으로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채용하는 분야가 일정 이상의 학력이나 스펙, 신체조건을 요구하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력서에 학벌·학력·출신지·신체조건 등 차별적 요인을 일절 기재하지 않도록 해서 명문대 출신이나 일반대 출신이나, 서울에 있는 대학 출신이나 지방대 출신이나 똑같은 조건과 출발선에서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등은 이달 중으로 관계부처 합동의 공공부문 블라인드 실천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들 부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인사지원서, 면접 등에서 편견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출신지,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 인적사항을 삭제하고 실력중심의 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우 시행 준비가 완료돼 올해까지 블라인드 채용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블라인드 채용제) 법제화 전까지는 민간 쪽은 우리가 강제할 수 없지만 권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3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7]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무안출발 일본여행
2017. 07. 07(금) 쭈~우~욱~~~~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LTD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대표전화 : 062-234-3222
F A X :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가)
NAVER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 · 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대표이사 최 금 환

기타큐슈 일본국적 스타플라이어
※선착순 한정 특가
선박+항공 7/11 7/18
3일 북큐슈 298,000원 부터
4일 북큐슈 · 야마구치 398,000원 부터
항공 3일 7/21 7/28
북큐슈 3일 549,000원 부터
큐슈 · 야마구치 3일 699,000원 부터
항공 4일·5일
북큐슈 4일 649,000원 부터 8/1 8/5 8/8
큐슈 · 오사카 5일 698,000원 부터 8/20
자유여행 항공권 198,000원(TAX포함) 부터
◆포 함 사 항 : 왕복항공료, 항공TAX, 일본 현지 차량, 전 일정 식사, 관광지 입장료, 한국어 가이드, 해외여행자보험
◆불포함사항 : 개인 여권 및 경비, 기사&가이드 경비(₩30,000/인)

다낭 무안출발 베트남항공
여름 휴가기간(3박5일) 단, 4회!
7/30(일), 8/3(목), 8/7(월), 8/11(금)
[실속] 다낭 · 후에 · 호이안 999,000원 부터
(둘째날 오전 자유시간)
◆포 함 사 항 : 무안 ↔ 다낭 왕복항공요금, 1억원 여행자보험, 호텔(2인1실), 식사, 차량, 한국인 가이드, 일정상의 관광지 입장료, 차량 내 생수
◆불포함사항 : 현지 가이드 및 기사 경비(성인 $40, 만 12세 미만 $30), 개인 경비, 선택 관광, 매너팁, 싱글차지(3박 – 준특급 $120, 특급 $210, 초특급 $315)
노팁 노옵션
다낭 · 후에 · 호이안 1,299,000원 부터
◆포 함 사 항 : 무안 ↔ 다낭 왕복 항공요금, 1억원 여행자보험, 호텔(2인1실), 식사, 차량, 한국인 가이드, 일정상의 관광지 입장료, 전신안마 90분 2회, 바구니배, 바나산국립공원+케이블카, 호이안 야간시티투어+씨클로, 투본강투어, 차량 내 생수, 가이드&기사경비
◆불포함사항 : 개인 경비, 매너 팁, 싱글차지(3박 – 준특급 $120, 특급 $210, 초특급 $315)

제주도 올레 2박3일
289,000원 부터
~ 2017년 12월 31일 까지

울릉도&독도 2박3일
464,000원 부터

홍도&흑산도 1박 2일
245,000원 부터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 제동다2003-1호
◈ 공통조건 : 여행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외상품 :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 지역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 업체 ◈ 예약시 계약서(취소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경비없음(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택관광, 각국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